

국내 양돈생산 성장의 한계와 발전 전략



1. 국내 양돈생산의 구조적 문제

가. 환경오염형 양돈 생산

국 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보전이라는 패러다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들은 환경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양돈산업의 존폐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양돈의 현실은 어떤가? 국내 돈사시설은 분뇨가 혼합 처리되는 슬러리 돈사가 대부분으로,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는 매우 어렵다.

나.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고비용 생산 구조

우리나라 양돈 생산은 사료 원료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돼지 생산비의 50% 이상이 사료비라는 수입사료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돈생산은 국제 사료곡 물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돼지고기 생산비도 곧바로 상승하게 되는 취약점을 가지며, 사료 수출국인 미국 등에 비해 고비용의 생산구조를 갖게 된다. 수치적으로는 비육돈 생체 1kg당 생산비가 경쟁국에 비해 10~50% 정도 높고, 생체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심해 60~70% 정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덴마크의 경우 미국에 못지않은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가격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윤 헉
덕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 밀집 사육에 의한 질병의 다발과 생산성 저하

지역별 가축사육밀집도와 전염병발생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밀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화계수라는 것이 있다. 특화계수가 1이상이면 전국 평균 밀집도에 해당하고, 3이면 전국 평균 밀집도의 3배 정도의 밀도를 가진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도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중에서 한 육우의 경우 4개 시·군 중 1개 군이, 젖소의 경우 6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특화계수가 3이상이었다. 2002년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중에는 한육우의 경우 4개 시·군 중 1개 시·군이, 젖소의 경우 4개 시·군 중 2개 시·군이, 돼지의 경우 4개 시·군 중 무려 3개 시·군이나 특화계수 3이상의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육밀도와 전염병 발생 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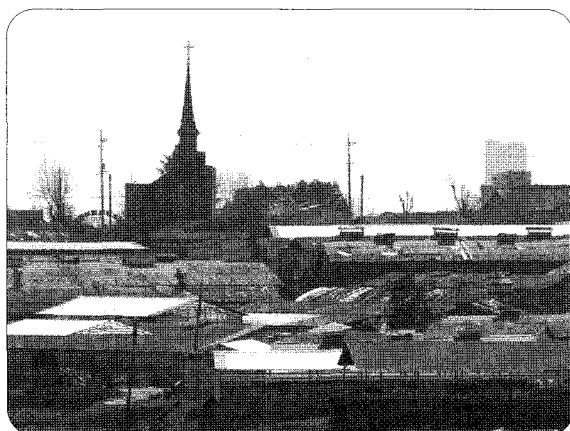
한편, 축산연구소에서는 농가단위에서 사육밀도를 완화하면(예컨대 자돈사 두당 면적 0.16m²/두에서 0.24m²/두로 개선) 질병발생이

감소(소 4.3%, 돼지13.5%, 닭 19.0%감소) 하였고, 생산성도 적지 않게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라. 수입 돼지고기의 위협

DDA 협상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칠레, 한·일 FTA 협상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DD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미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관세 감축 폭이 낮아서 협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FTA 협상이 타결되면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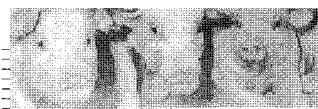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 협상 대상국인 일본과 2005년 말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이 체결되면 양돈산업에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상대국이 미국이나 카나다, 덴마크, 중국 등이라면 파급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지역별 가축사육밀집도와 전염병발생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사진은 전북 익산시 원궁면 양돈 집락촌) <자료 사진>



▲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료 사진>



2. 양돈 생산의 성장 요인과 한계

가. 양돈생산의 성장요인 : 상대가격의 유리성과 수요의 증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젖소와 한우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고, 2002년에 돼지 구제역과 2003년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산 쇠고기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상가상으로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과 카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마저 수입이 중단된 상태여서 부족한 국내산 육류 공급분을 돼지고기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2000년 이후 돼지고기의 강력한 대체재인 쇠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나. 양돈 생산 성장의 한계 : 환경의 제약

양돈산업을 가장 크게 제약하고 있는 요인은 환경문제이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경지면

적을 초과하는 두수만큼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실어가고 있다.

가축에서 발생되는 분뇨 중 환경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P)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과다 사육지역만을 고려할 경우 전체 수

용가능 경지면적의 16.2% 정도가 과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산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고려치 않은 수치이다.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줄인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약 24% 정도가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환경측면에서 양돈산업이 이미 성장 즉, 양적 팽창의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의 도약 즉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 양돈 생산의 발전 전략

축산물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가축비와 사료비이다. 가축비를 줄이기 위해 일관생산과 종돈 개량이 더욱 진행되어야 하고, 사료의 절감을 위한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규모의 확대 또는 일회 구입단위의 확대로 단위당 사료구입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돼지의 사료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비용이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사료비 이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단위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도 있고, 높아지는 비용 이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진 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도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는 위생적이고 잔류물질이 없는 사양관리 및 유통이 기본이다. 축산농가, 관련 유통업자 등 관계자 모두가 위생수준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식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장에 대한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가 기록의 위한 지도사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상품 자체의 품질 제고, 위생적인 처리방법의 확보, 안전성 실현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그

동안 잊어버렸던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 있다. 가축의 질병 및 전염병으로 인한 수요의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바로 생산이력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 활성화 정책이며, 이제 수요확대의 패러다임은 바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있다.

이제 수급조절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를 전문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판매를 촉진하여 농가경영의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 정부·생산자단체·농가간에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제 생산자조직이 유통개선 및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는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양동

특집
한국
농업
기술
전시회
행사
정보

행사안내

KISTOCK 2005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05

성공비즈니스와 축산발전의 미래를 여는 국내유일의 박람회!!
KISTOCK 2005 와 함께 하십시오.



비즈니스 박람회

비즈니스센터 운영
해외투자단 유치
수출입품목 알선

체험 박람회

소독설비,
분뇨처리 시설
등을 직접체험

참여 박람회

증축경매,
축산물 시식회,
학술행사 등에 참여

유성 IC

6Km

북대전 IC

6Km

엑스포
공원사거리

시청방향

대전무역전시관

MBC방향

주최 : (사)대전상인총협회(주관단체), (사)한국낙농우편회
(사)한국농업기술원, (사)전국한국밀협회
(사)전국축산물流通사업자협회

후원 : 농림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화 : (02)571-9751~5(박동희 사무국장),
(042)365-9000, 019-258-2361
팩스 : (02)575-5073